

요한일서 2장 20, 27절의 *χρῖσμα*에 대한 해석

이 승 미

사도 요한 자신이 *χρῖσμα*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가지 상이한 해석들(우리의 연구속에서 나타나겠지만)이 나타나게 되었다. *χρῖσμα*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일치할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이 연구로 하여금 의미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필요하게까지 한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부정적인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그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도리어 그 목적은 *χρῖσμα*라는 단어를 언급함에 있어서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문장단락의 사고 구조의 분석(analysis of the thought structure of the section)을 통하여 특별히 *χρῖσμα*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조사해 보는 것과 그림으로 해서 학적으로 그것의 해석을 수호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데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해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구분하여 *χρῖσμα*에 대해 살펴본 뒤에, —(1) 2:18~27의 사고 구조(The Thought Structure of

2:18~27)¹⁾, (2) *του ἁγίου*의 정체(The Identity of *του ἁγίου*) 그리고 (3) *χρῖσμα*의 의미(The Meaning of *χρῖσμα*) — *χρῖσμα*의 주된 역할(The Main Role *χρῖσμα*)과 *χρῖσμα*의 역사(The Work of *χρῖσμ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2:18~27의 사고구조에 대한 분석

*χρῖσμα*에 대해 학적으로 수호할 목적이라면, 2:18~27의 사고구조내에서 *χρῖσμα*에 대한 언급들의 위치를 설정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²⁾

위에 지시한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올 수 있다.

1. 이 단락(2:18~27)은 ‘그리스도(또는 성령, *χρῖσμα*)대(對)적그리스도(또는 거짓 선지자들)’라는 명확한 주제에 의해서 4:1~6³⁾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 4:1~6에서는 *πνεῦμα*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으나, 2:18~27에서는 *χρῖσμα*라는 단어로 나타난다.

2. *χρῖσμα*와 함께 *οἶδα*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20절에서 현저하게 사용되어진다.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οἶδα*라는 말은 “확실하고, 절대적이며, 반박할 여지가 있을 수 없는 확실한 것”을 나타낸다. (Du Toit, 1981:87). 여기에서 *χρῖσμα*는 그 가르치는 역할(teaching-role, 20절, 27절)에 있어서 확실한 지식과 확실성의 위대한 원천으

1) 2:18~27의 단락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 (awarning against antichrists) (Marshall, 1979:147) 또는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나(Christ or antichrist) (Houlden, 1976:75) 또는(Ons sekerheid teen die valse leer van die Antichris) (Coetzee, 1980:18) 라는 주제에 따라 구분되어질 수 있다. 2:18~27에서 *χρῖσμα*라는 말은 20절에서 한 번 그리고 27절에서 두 번, 모두 세 번 나타난다.

2) 이 도표는 Coetzee (1980:18, 32), Du Rand (1981:5~6) 그리고 Malatesta (1973:16~19)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3) Coetzee, 1981:53.

요한일서 2장18~27의 사상구조 분석

서	술	절	본문
적그리스도가 오고있으며 이미 와 있음 승리의 보증: 그러나 너희는 Χρισμα 가 있으며, 모든것을 믿다 (20)	→	18a	Παιδία, ἔσχατη ὥρα ἐστίν,
		b	καὶ καθὼς ἤκουσατε
		c	ὅτι ἀντιχριστὸς ἔρχεται,
		d	καὶ νῦν ἀντιχριστοὶ πολλοὶ γεγωνασίν· ὅθεν γίνωσκόμεν ὅτι ἔσχατη ὥρα ἐστίν.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 승리의 보증: 그러나 너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u>함함</u> : 그의 약속— 永生 (24-25)	→	19a	ἐξ ἡμῶν ἐξηλθάν,
		b	ἀλλ' οὐκ ἦσαν ἐξ ἡμῶν
		c	εἰ γὰρ ἐξ ἡμῶν ἦσαν,
		d	μεμνηκείσαν ἂν μεθ' ἡμῶν·
		e	ἀλλ' ἵνα φανερωθῶσιν
		f	ὅτι οὐκ εἰσὶν πάντε ἐξ ἡμῶν.
거짓교훈에 대한 사도의 경고 보증: 주께 받은바 Χρισμα가 너희와 함께 함(27a~b)	→	20a	καὶ ὑμεῖς <u>Χρισμα</u> ἔχετε ἀπὸ τοῦ ἁγίου,
		b	καὶ οἴδατε πάντες· XXXXXXXXXXXX
		21a	οὐκ ἔγραψα ὑμῖν
		b	ὅτι οὐκ οἶδατε τὴν ἀληθειαν,
		c	ἀλλ' ὅτι οἶδατε αὐτὴν, XXXXXXXXXXXX
		d	καὶ ὅτι παν ψευδὸς ἐκ τῆς ἀληθείας οὐκ ἐστίν.
		22a	Τίς ἐστὶν ὁ ψευστής
		b	εἰ μὴ ὁ ἀρνούμενος ὅτι Ἰησοῦς οὐκ ἐστίν ὁ Χριστός;
		c	οὗτος ἐστὶν ὁ ἀντιχριστός,
		d	ὁ ἀρνούμενος τὸν <u>πατέρα</u> καὶ τὸν <u>υἱόν</u> .
		23a	πᾶς ὁ ἀρνούμενος τὸν <u>υἱόν</u> οὐδὲ τὸν <u>πατέρα</u> ἔχει·
		b	ὁ ὁμολογῶν τὸν <u>υἱόν</u> καὶ τὸν <u>πατέρα</u> ἔχει.
24a	ὑμεῖς ὁ ἤκουσατε ἀπ' ἀρχῆς ἐν ὑμῖν μενετε.		
b	εἰ ἐν ὑμῖν μενῆ ὁ ἀπ' ἀρχῆς ἤκουσατε,		
c	καὶ ὑμεῖς ἐν τῷ <u>ὑίῳ</u> καὶ ἐν τῷ <u>πατρὶ</u> μενετε .		
25a	καὶ αὕτη ἐστὶν ἡ ἐπαγγελία		
b	ἣν αὐτὸς ἐπηγγείλατο ἡμῖν,		
c	<u>τὴν ζωὴν τὴν αἰώνιον</u> .		
26	Ταῦτα ἔγραψα ὑμῖν περὶ τῶν πλανῶντων ὑμᾶς.		
27a	καὶ ὑμεῖς <u>τὸ χρισμα</u> ὃ ἔλαβετε ἀπ' αὐτοῦ		
b	μενεῖ ἐν ὑμῖν,		
c	καὶ οὐ χρειᾶν ἔχετε ἵνα τίς διδάσκῃ ὑμᾶς·		
d	ἀλλ' ὡς <u>το αὐτοῦ χρισμα</u> διδάσκει ὑμᾶς περὶ παντων,		
e	καὶ ἀληθὲς ἐστίν,		
f	καὶ οὐκ ἐστὶν ψευδὸς,		
g	καὶ καθὼς εἰδῶσεν ὑμᾶς,		
h	μενετε ἐν αὐτῷ.		

로 언급되어진다. 이 단락(2:18~27)에 있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승리는 20절과 27절에 있는 Χρισμα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보증되어지는 것이다.

3. 요한 일서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들로서 주로 οἶδα, υἱος, πατηρ 그리고 τὴν ζωὴν τὴν αἰώνιον을 들 수 있는데 이 모두는 Χρισμα에 의해서 둘러 싸여 있다. 그러한 현상들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v 20 a Χρισμα
- 20 b οἶδατε
- 21 b οἶδατε 21 c οἶδατε
- 22 d πατερα ... υἱον
- 23 a υἱον ... πατερα
- 23 b υἱον ... πατερα
- 24 c υἱω ... πατρι
- 25 c τὴν ζωὴν τὴν αἰώνιον
- 27 a Χρισμα
- 27 d Χρισμα

이것은 2:18~27에서 Χρισμα가 마치 5:13에서는 물론 5:6~12에서 성령이 μαρτυρια, θεος, υἱος(또는 υἱος του θεου) 그리고 τὴν ζωὴν τὴν αἰώνιο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것들과 밀접하게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4. 놀랍게도 Χρισμα라는 것은 그 기능이나 특질에 있어서 πνευμα(또는 παρακλητος:성령)와 닮았다. 즉, 역사적으로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이 그 서신서 보다는 앞에 쓰여졌었다는 사실과 Χρισμα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 ... ἐκεῖνος(το πνευμα το ἁγιον) ὑμᾶς διδάσει πάντα ... 요 14:26
- ... το αὐτοῦ Χρισμα διδάσκει ὑμᾶς περὶ παντων ... 요일2:27d
- ... ὅταν δε ἔλθῃ ἐκεῖνος, το πνευμα της ἀληθείας ...
- ἐν τη ἀληθεια παση ... 요 16:13
- ... το αὐτοῦ Χρισμα ... ἀληθες ἐστιν ... 요일2:27d-e

... ἄλλον παρακλητον δώσει... παρ' ὑμιν μενει ... 요 14 : 16
 ... ὑμεις το Χρισμα ὁ ἔλαβετε ἀπ αὐτου μενει
 ἐν ὑμιν ... 요일 2:27a-b
 ... ὁ παρακλητος ὃν ἔγω(ὁ υἱος) πεμφω ὑμιν ... 요 15 : 26
 ... ὑμεις Χρισμα ἔχετε ἀπο του ἁγιου(Χριστος)⁴⁾ ... 요일 2:20a

2. του ἁγιου의 정체

20절에 있는 ὁ ἅγιος가 Χρισμα의 '발송인' 또는 '주는이' 또는 '수여자'로 언급되어졌기 때문에,⁵⁾ 그것을 살펴본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며 그것은 우리들을 Χρισμα에 대한 정확한 해석으로 인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요한에게 있어서 ὁ ἅγιος란 '성령'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⁶⁾ 도리어 '하나님'이나 더욱 더 가능성이 있는 '그리스도'⁷⁾를 언급하는 것 같다.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1. ὁ ἅγιος가 그리스도라는 해석은 '성령의 수여하심'에 대한 요한의 설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2 : 20과 2 : 27의 정확한 비교법(parallelism)에 의해서 제시되어진다. 그것은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로, 그는 아버지께 주시기를 간구하며 (요 14 : 16) 또 그의 이름으로 보내어 주시도록 간구하며 (요 14 : 26) 그리고 그 자신이 그의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사 (요 15 : 26~27; 16 : 7, 14) 우리로 하여

4) "του ἁγιου의 정체"에 대해서는 section 2를 참고하라.

5) 전치사 'απ'는 Χρισμα가 오는 원천으로서 ὁ ἅγιος를 나타낸다. Westcott는 말하기를, "Χοισμα란 말은 물질적인 표시로 이해 되어져서는 안되고, 상응하는 영적 실체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한다. (1976 : 73.)

6) 그러나, Morris는 말하기를 "거룩한 것이란 비밀상적 표현으로 그것은 성령을 언급하는 것외에는 어느것도 아님을 의심할 수 없다"고 한다(1970 : 1264).

7)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 ὁ ἅγιος를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여기에 동의한다. 즉 Huther (1882 : 360); Plummer (1911 : 111); Haas 외의 공저(1972 : 64); Westcott (1976 : 73); Marshall (1979 : 155), 등.

금 그의 가르치심들을 깨닫고서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이다.

2. 이 단락(2 : 18~27)에 있어서 적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중심적인 이름은 분명히 그 아들(그리스도)인 것이다.⁸⁾ 따라서 v27a (ὑμεις το Χρισμα ὁ ἔλαβετε ἀπ αὐτου)와 v27d (το αὐτου Χρισμα)에 있는 αὐτου는 v25b와 v27h⁹⁾에 있는 αὐτος와 같이 그 아들(그리스도)를 언급한다고 할 수 있다.

3. 요한은 또한 그의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 의 거룩하신자(ὁ ἅγιος του θεου) 신줄 믿고 알았삽나이다" (6 : 69)라고 외칠 때에 ὁ ἅγιος를 예수께 적용한다.¹⁰⁾

4. ἅγιος του θεου로서의 그리스도는 "악마들의 나라를 파괴할 영적시대(the pneumatic age)의 시조와 취임자"로 언급되어질 수 있다. (Procksh, 1978 : 102)

그러므로 위에 든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반대하면서 거짓된 영에 의해 활개치는 적 그리스도에 마주하여 대항하는 전쟁터에 이러한 ὁ ἅγιος라는 특별한 생각을 적용하고 있는 요한을 보게 한다(4 : 1~6). Χρισμα란 것은 애매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ὁ ἅγιος, 즉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대단한 선물인 것이다.

3. Χρισμα의 의미

8) 2 : 18~27에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6번 나온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들(4번). 반면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3번 언급한다.

9) μενει ἐν αὐτω는 24절과 25절을 상기에 한다. Huther(1882 : 370) 참고.

10) 요한복음서에 있어서 동의어(그러나 절대적으로는 요 6 : 69과 요일 2 : 20에만 있어서)는 6번 나타나는데 네번은 성에 대해 언급하고(1 : 33; 7 : 39; 14 : 26; 20 : 22), 한 번은 아버지(17 : 11) 그리고 한 번은 예수에 대해서이며(6 : 69), 요한 서신서에 있어서는 ὁ ἅγιος는 여기에서만 나타난다.

동사 *Χριω*(기름붓다)에서 파생되어진¹¹⁾ *Χρισμα*란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기름을 부음(또는 기름)”¹²⁾ 또는 “연고”(Plummer, 1911 : 110)를 뜻한다. 헬라어 동사 *Χριω*는 거룩한 봉헌의 상징인 기름부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동사 마샤아에 해당된다. (Haupt, 1897 : 123; Westcott, 1976 : 73) 구약성경에 있어서 *Χρισμα*라는 생각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다.¹³⁾

여기서 *Χρισμα*란 것은 기름붓는 행위라기 보다는 기름부음으로 완성되어진 어떤 것을 가르킨다.¹⁴⁾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이 영지주의적 용어를 빌려와서는 거기에 새로운 내용을 더하고 있다는 어떠한 가설도 거부하는 것이다.¹⁵⁾ Vorster (1975:94)는 Coetzee (1981 : 53)와 함께 이렇게 말한다.

“요한 일서의 *Χοισμα*라는 단어의 사용으로 인해서 그것이 요한 일서 저자가 거짓교사들과의 대결중에서 사용하였던 영지주의적 용어라고 결론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첫째로 *Χοισμα*가 전적으로 영지주의적 용어였다고 결론 지을 만한 충분한 자료를 우리는 갖지 못하고 있으며 두번째로 요한 일서의 문맥속에서 그것을 영지주의적 용어로 간주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요한이 *Χρισμα*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 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해석들이란 다음과 같다.

① 하나님의 말씀 또는 복음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으로서의 *Χρισμα*.¹⁶⁾

11) Thayer, 1896 : 672.

12) Alford (1866 : 451); Huther (1882 : 358); Westcott (1976 : 73) Haupt, (1879 : 124).

13) 출29 : 7; 30 : 25; 40 : 15; 사61 : 1; 시2 : 2; 45 : 7; Haupt (1879 : 123); Huther (1882 : 358); Westcott (1976 : 173) 참조.

14) Plummer 는 *Χοισμα*를 “기름부음의 완전한 행위” (1911 : 110); Coetzee는 “어떤이에게 기름을 붓는 실제” (1981 : 53); Westcott는 “그것이 이루어지는데에 사용되어지는 것” (1976 : 73) 으로 불렀다.

15) Haenchen (1966 : 38) Vorsfer, 1975 : 93 참조.

16) Dodd (1947 : 63); Barclay (1976 : 66, 68~71) 참조.

②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말씀으로서의 *Χρισμα*.¹⁷⁾

③ 성령의 선물로서의 *Χρισμα*.¹⁸⁾

④ 성령으로서의 *Χρισμα*.¹⁹⁾

Dodd (1947 : 58~64)는 요한 일서에 있어서 *Χρισμα*의 사용은 히브리종교 보다는 헬라 종교의 배경을 가지며 지식의 한 종류로서 ‘영지’ (gnosis)로 언급 되어지기 때문에, 주로 정통적인 *Χρισμα*는 또한 내주하시며 살아계시면서 계속하여서 가르치시는 능력으로서 주로 복음서인 일련의 가르침의 총체로도 여겨져야만 한다고 장황하게 논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를 증거함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Stott (1981 : 109~110)와 Alexander (1962 : 72)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여 위에서 언급된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a) 여기서의 *Χρισμα* 와 *διδασκει* 와의 강한 연결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Χρισμα*보다는 차라리 약속한 *παρακλητος*—영 (요14 : 26, 16 : 13)의 정확한 역할을 *Χρισμα*에 돌린다.

(b) 신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그 자체로서 참다운 ‘영지’ 인 영원한 복음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지식은 신자들이 은혜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적인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석 ②는 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③이나 ④와 함께 ①이 다소 조합된 것이며, 그것은 ①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것이다.

해석 ③과 ④는 약간 강조점을 달리하여 동일한 성령의 분야내에

17) Marshall (1979 : 155); Potterie (1971 : 114f).

18) Brooke (1980 : 56, 62); Alexander (1962 : 69~72); Grundmann (1978 : 572); Candlish (1979 : 165~166).

19) Huther (1882 : 358~359); Haupt (1879 : 126); Robertson (1933 : 216, 218~219); Plummer (1911 : 110); Ross (1954 : 170); Vos (1978 : 115); Müller (1976 : 123); Stott (1981 : 106~107, 109~110); Hass의 공저 (1972 : 60~73); Westcott (1976 : 73, 78~80); Cotzee (1981 : 53~55).

서 나타난다는 것이 명확하다. 즉 ③이 강조하는 경우는 성령의 ‘은사’ (사역) 위에 놓여진다는 것이고 ④의 경우는 성령 그분 자신이 강조되어지는 것이다.

③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개의 대표적 해석들중 마지막 것, 즉 성령 자신으로서의 *Χρισμα*는 좀더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구약성경에 있어서 ‘기름부음’ (*Χρισμα*)이란 항상 성령의 형태인 것이다.²⁰⁾

(b) *Χρισμα*가 의도적으로 *πνευμα* (또는 *παρακλητος*)와 대조가 된다.

(1) 성령을 주시는 자가 그리스도인 것처럼,²¹⁾ *Χρισμα*를 주시는 자도 그리스도이다 (요일 2 : 20, 27a).

(2) 요한복음 14 : 26에서 *πνευμα* (성령)은 위대한 선생 (*διδασκει*)으로 묘사 되어져 있으며, 요일 2 : 27d에서는 *Χρισμα* 그 자체가 선생 (*διδασκει*)이다.

(3) 요일 5 : 6에서 *πνευμα*는 *ἄληθεια*며, 요일 2 : 27e에서는 *Χρισμα*가 *ἄληθες*이다.

(4) 요 16 : 13은 *το πνευμα της ἀληθειας*께서 우리를 *ἐν τη ἀληθεια παση*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요일 2 : 20에는 *Χρισμα*에게서 우리는 *παντες*와 *ἀληθεια*를 안다고 기록되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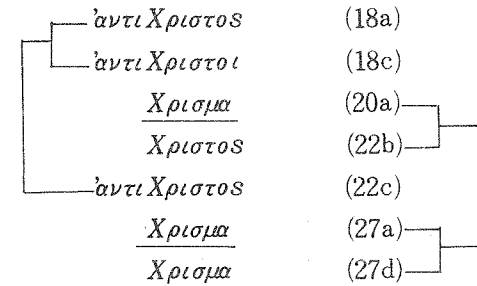
(5) 요 14 : 17에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μενει*)분으로 성령님이 묘사되어져 있는 반면에, 요일 2 : 27a-b에서도 *Χρισμα*가 *το Χρισμα... μενει ἐν ὑμων*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6) 요일 2 : 27a의 *ὑμεις Χρισμα ὁ ἔλαβετε*와 요일 15 : 26의 *ἐγω πεμφω ὑμιν... το πνευμα της ἀληθειας*의 두 문장들은 다음의 사실을 가능케 한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요한 일서에서 우리가 그로부터 *Χρισμα*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정확하게 성취되어진다는 것이다. 즉, *Χρισμα*란 다름 아닌 바로 진리의 영이다.

(c) 요한에게 있어서 이 단락 (2 : 18~27)에서의 *Χρισμα*의 사용의 의도와 목적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성자)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제공할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4 : 1~6에서 *πνευμα*가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항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여기에서의 *Χρισμα*의 역할도 아주 분명한 것이다.

ἄντιχριστος (-τοι)나 *Χριστος*와 *Χρισμα*와의 요한의 대조는 이러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²²⁾



그런고로 개인적인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Χρισμα*가 성령 자신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에 있어서는 위대한 투사이시기 때문이다.²³⁾

20) 삼상 10 : 1ff.; 16 : 13, 14; 사 61 : 1; Huther (1882 : 358); Haupt (1879 : 12, 126); Ross (1954 : 170) 참조.

21) 요 14 : 26; 15 : 26; 16 : 17, 14.

22) Marshall (1979 : 153), Houlden (1976 : 79, Hoskyns (1928 : 664) Stott (1981 : 106); Haupt (1879 : 126~127)와 Brooke (1980 : 55)는 여기서의 *Χοισμα*의 사용을 *ἄντιχριστος* 라는 말에 대한 고의적인 언어유희 (pun)의 한 종류로 본다. 왜냐하면 *ἄντιχριστος*, *Χοιστος* 그리고 *Χοισμα* 모두가 동일한 동사 *Χοιω* (기름부다)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23) 요일 5 : 6~12; 요일 15 : 26 : 16 : 13~15 참조.

4. *Χρισμα*의 주된 역할

적그리스도의 행위들이 만연해 가는 마지막 때(종말론적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Χρισμα* - 성령에 관한 설교가 여기에서 그러한 상황과 겨루기 위해서 강조되어진다. *Χρισμα*의 주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대한 선생으로서의 *Χρισμα* - 성령

*Χρισμα*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27절에서의 동사 *διδασκειν*의 연속된 사용은 요한이 *Χρισμα*의 역할로서 위대한 선생이라는 데에 특별한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은 강조하기를 *Χρισμα* - 진리의 영은 우리(교회)로 하여금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Χρισμα*에 의해서 너희 모두가 진리를 알 것이다' (*και οιδετε παντες*, 2:20b)는 것과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다' (*οιδετε την αληθειαν*, 2:21c)는 것과 더우기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 (2:21b-c)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27c). Coetzee는 말하기를,

“성령이 위대한 증거자이며 (5:6~8), 참된 선지의 위대한 영감자이며 (4:1~3), 진리를 위한 위대한 용사인 것처럼 (4:4~6), 그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위대한 선생인 것이다” (1981:55)

라고 하였다.

2.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방어자로서의 *Χρισμα* - 성령

이 단락에서 (2:18~27)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특성에 대해 세가지 요소들을 볼 수 있다.

(a)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기에 거짓말장이다 (22a-c).

(b) 그는 아들과 함께 아버지도 부인하는데 (22d), 왜냐하면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그 아들의 근원을 부인하는 데로 이끌기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말이다 (참고 5:10).

(c) 그는 아들도 아버지도 소유하지 못했다 (23).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쉽게 발견된다.

(a)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서²⁴⁾ (*ἐξ ἡμῶν ἐξηλθαν* - 19a) '자의적으로 분리하여 나간²⁵⁾' 사람들이다.

(b) 그들은 한 때에는 교회의 성원들(아마도 이름뿐인 성원들)이었다. (19a, c, d).

(c) 그들은 이제 어떤 입장에서도 더 이상 교회의 성원들이 아니다 (19b-d).²⁶⁾

19a-d의 독특한 구조²⁷⁾는 그들이 분리하기 전에도 (19a) 그들은 교회의 참된 성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로 교회의 성원들이었다면 (19b-c), 그들은 교회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19d)

요한은 18절에서 교회안의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현재적인 국면을 소개한다.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Haas 외 공저, 1972:60) 이제 그는 우리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통적 고백 (사도적인

24) *ἡμῶν* (우리에게) 독특한 반복이 19절에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기억할만한 것이다. 한 구절속에서 주요단어 *ἡμῶν*이 5번 나타난다. 요한에서 있어서 *ἡμῶν*이란 그리스도의 교회, 즉 참된 성도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Plummer은 말하기를, “그 단어가 그들이 예수로 부터 나왔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관점이 있었던가? 더우기, 사도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기록하지 않고, 항상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들에게 썼다. ‘우리에게’란 말은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모든 진실한 크리스찬들을 포함한다.”고 한다. (1911:108) Huther도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1882:354)

25) 헬라어에서 *ἐξ ἡμῶν*의 위치는 강조되어진 것이므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아마도 그들 자의로서의 행동으로 여겨진다.

26) *ἦσαν ἐξ ἡμῶν* (19b - 미완료)의 계속적인 조건은 *ἐξηλθαν* (19a - 단순과거)의 단순한 행동과 대조된다.

27) Coetzee는 그것을 “긍정—부정—긍정—부정 구조”라고 부른다. (1980, 32)

것)에 관해서 그들이 지녔던 다른 관점으로 인해서 주로 그들 자신들을 추방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Marshall, 1979 :152; Malatesta, 1978 :201; Stott, 1981 :105).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회의 사도적인 가르침에 그렇게 위험한 상태로 위협하여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Χρισμα* - 성령의 가르치시는 사역에 대해 요한이 강조하는데 있어서 동기가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방어자로서 말이다.

4:4~6에서 '진리를 위한 위대한 용사'로 성령이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Χρισμα* - 성령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방어자'로서도 일컬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들(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보증인으로서의 *Χρισμα* - 성령

2:18~27에서 다음 세가지의 사실들은 명확하다.

(a) 그리스도(*ὁ ἅγιος*)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의 선물로 *Χρισμα*를 주셨다 (2:20).

(b) 그리스도의 방어자로서의 *Χρισμα*의 역할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c) 요한의 *ὑμεῖς Χρισμα ἔχετε ἀπο τοῦ ἁγίου*에 관한 가르침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참고 5:13).

Coetzee (1980 :16~26)는 이 단락 (2:18~27)이 적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Χρισμα*에 의한 교회의 보증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확하게 본다. '너희는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Χρισμα*를 지녔고 모든것을 알기 때문이다.' (20)

'적그리스도는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면서 거짓을 말하나, 너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그의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24~25). '나의 경고의 목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 가르침에 있으나, 너희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너희안에 거하시는 *Χρισμα*를 주셨다' (27a-b).

요한은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악행들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그는 우리들에게 *Χρισμα*의 내주하시는 행위에 대한 그의 교훈속에서 확실한 보증을 제공한다.

가르치고 (27) 진리와 거짓사이를 분별하는 것을 통한 *Χρισμα*의 행위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현재의 사도적 신앙고백이 참되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5. *Χρισμα* - 성령의 역사(役事)

요한은 적그리스도와 날카롭게 직면하고 있는²⁸⁾ 우리에게 (18, 19)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부터 *Χρισμα*를 받았다(*ἔχετε*)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20). *Χρισμα*의 받은 바(*ἔλαβετε*)에 대해 거듭한 뒤에, 그는 이제 우리들에게 방어로써 *Χρισμα*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27).

처음에는 *ἔχετε*의 목적어로 (20a), 그다음에는 *ἔλαβετε*의 목적어 (27b)로서의 *Χρισμα*는 이제 *μενει ἐν ὑμῖν* (27b), *διδασκει ὑμῖς περὶ παντων* (27d), *ἀληθες ἔστιν* (27e), *οὐκ ἔστιν ψευδος* (27f), 와 *ἔδιδασεν* (27g)의 주어이다.

1. 거하시는 *Χρισμα*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가 보낼 성령은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실 것이라고 하였으며 (요14:16), 이제 요한은 27b에서 말하기를 *ὑμεῖς το Χρισμα ὃ ἔλαβετε ἀπ' αὐτοῦ μενει ἐν ὑμῖν*이라고 한다. *ὑμεῖς Χρισμα ἔχετε ἀπο τοῦ ἁγίου*와 함께 이 멧세지는 그의 교회를 향한 예수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보증되어진 서술인 것이다 (Coetzee, 1981 :54). 참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떠

28) *Χρισμα*가 두번 소개되어지는데, *καὶ ὑμεῖς*가 선행한다. (20a, 27b) 두번다 반대적 의미의 *καὶ*와 강조의 *ὑμεῖς*는 교회와 적그리스도 사이의 구분을 강조하는태기여한다. (Malatesta, 1978 :220~221)

날짜라도 계속하여 남는다는 사실은 (19절) 이 *Χρισμα* - 성령이 그들 속에 거한다는 강한 증거이다 (Bruce, 1981 : 76).

우리 속에 *Χρισμα*의 거함은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게 한다. 왜냐하면 *Χρισμα* - 성령 자신이 좋은 선생이기 때문이다 (27a-d). 이것이 전혀 인간 선생이 차지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한의 주된 관심사는 아버지와 우리를 향한 그의 뜻에 관한 모든 진리의 궁극적 기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는 사실에 있다 (Malatesta, 1978 : 222).

2. 가르치시는 *Χρισμα*

2 : 27에 있는 문장, *ἀλλ' ὡς... μενετε ἐν αὐτῷ*에 있는 문장을 확장한 뒤에, —거기에는 *Χρισμα*의 가르치는 역할이 주가 되어있다— 우리는 현재의 주제인 가르치시는 *Χρισμα*를 다루려고 한다.

이 구절에 있어서 학자들의 견해들은 나뉘어져 있다. 즉 Westcott (1976 : 78~79)와 Alford (1874 : 456)와 같은 자들은 그 구절 (*ἀλλ' ὡς... μενετε ἐν αὐτῷ*)을 한 문장으로 취급하여 ‘그러나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너희를 가르쳤기에 너희는 그안에 거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Huther는 그것을 두 문장으로 본다. 즉, 그러나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너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은 참되고 결코 거짓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가르쳤기에 너희는 그에게 거하라’라고 본다 (1882 : 368~369); 참고, Plummer (1911 : 116).

이 문맥에서 가장 분명한 관점들은 다음과 같다.

(a) *ἀλλ'*는 문법적으로 *μενετε*와 연결되는 반대적 의미의 접속사로 여겨진다 (Malatesta, 1978 : 223).

(b) *μενετε αὐτῷ*는 조건부 (*ὡς... καθὼς ἐδίδαξεν ὑμᾶς*)에 대한 단지 귀결부인 것이다 (Westcott, 1976 : 80; Alford, 1874 : 456).

(c) 조건부에 있어서 두가지 부분, 즉 *καὶ ἀληθὲς ἐστὶν καὶ οὐκ ἐστὶν εὐδὸς*와 *καὶ καθὼς ἐδίδαξεν ὑμᾶς*는 바로 언급되는 *Χρισμα*에 대한 부가적 설명들로 여겨질 수 있다 (Westcott, 1976 : 80). 즉 전자는 *Χρισμα*의 특징에 해당되며 (Alford, 1874 : 456), 후자는 이 단락 (2 : 18~27)에 대한 현저한 증거와 함께 현재시제인 *διδασκε*의 아오리스트시제인 *ἐδίδαξεν*으로의 변화때문에 후자는 앞의 구절 (*ὡς... περὶ παντῶν*)에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성령 (*Χρισμα*)의 모든 과거의 가르침²⁹⁾에 해당된다.

(d) *Χρισμα ἔχετε ἀπο τοῦ ἁγίου*에 있는 *τοῦ ἁγίου*가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20) *το αὐτοῦ Χρισμα*에 있는 *αὐτοῦ*도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μενετε ἐν αὐτῷ*에 있는 대명사 *αὐτῷ* 또한 뒤에 따르는 28절 때문에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

위의 도움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번역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Χρισμα*)는 모든 것에 대해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는 (*Χρισμα*) 참되고 어떠한 거짓도 없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Χρισμα*) 너희를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는 그안에 (그리스도) 거하라.’³⁰⁾

그러므로 이것은 명백하다.

그리스도의 *Χρισμα*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가르침의 주관성은 한가지 명령과 함께 한다.

‘그리스도안에 거하라’

*Χρισμα*의 가르침은 신실하며 진실하다. 왜냐하면 *Χρισμα* 그분 자신이 진실하며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 29) Alford는 이것을 고찰한다. 즉 “그 주제의 새로운 측면이 밝혀졌다. 즉, 어떤 때에는 이 가르침이 그리스도로 부터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절대적 역사적 사실, 즉 그들이 사도적 가르침을 받을 때” (1874 : 456)
- 30) “헬라이어 동사형은 직설 범으로서가 아니라, 명령법으로 나타내야만 한다. —때문에 ‘그 안에 거하라’ (여기와 28절에)인 것이다.” (Haas의 공저, 1972 : 73; Alford, 1874 : 457)

“그가 (*Χρισμα*) 가 너희를 가르쳤던대로 그리스도안에 거하라”라는 구절은 24절의 “너희는 또한 아들안에서 거하라(*μενειτε εν*)”는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참고, Plummer, 1911 : 116). 24절에는 *μενετω*, *μεινη* 그리고 *μενειτε*의 세개의 동사가 나타난다. 24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교회) 진심으로 사도의 가르침, 즉 복음을 지니므로 아들안에 거하라고 권고한다. 사도요한과 *Χρισμα* 모두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다. 즉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안에 거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아들속에 거하라(24) 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요한의 기록은 *Χρισμα* - 성령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다른말로 하면, “확신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처음부터 들었던 멧세지를 지키라. 내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지킨다면.”이라는 권고 또는 가르침은 (Haas 외, 1972 : 61) *Χρισμα* 가 가르쳤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verse 24 - *υμεις ο ηκουσατε απ αρχης εν υμιν μενετω.*

εαν εν υμιν μεινη ο απ αρχη ηκουσατε,

και υμεις εν τω υιω και εν τω πατρι μενειτε.

verse 27g-h - *και καθως εδιδαξεν υμας,*

μενετε εν αυτω.

요약하면, *Χρισμα* - 성령은 위대한 선생이다. 그는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며, 그리고 계속하여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왔고 그리고 그속에서 *Χρισμα* 가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도의 말에 담긴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2 : 22a). 그리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이시다 (2 : 22b~23). 또 그는 진실로 완전하게 사람이 되었다 (4 : 3).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는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영생을 주기위해 정말로 죽었다 (5 : 6~12, 2 : 25)는 것이다. *Χρισμα*의 가르침에 있어서 주된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것이다.

Coetzee (1981 : 55)가 정확하게 지적하였던 것처럼, 그가 거짓된

*γνωσις*와 성도의 영지주의적인 지적 교만에 대항하는데 아주 분주함을 나타내는 그 단락 (2 : 18~27)에서, *γνωσις*와 *γινωσκειν* (이것은 요한일서에서 그가 잘 사용하는 단어들이다)을 사용하기 보다는 대신해서 *οιδα*와 *διδασκειν*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은 참된 믿음은 유일한 것이며 영지주의와 같은 어떤 이교도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 전자를 피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οιδατε παντες (2 : 20)과 *διδασκει υμεις περι παντων* (2 : 27)의 두 구절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신비스런’ 지식의 어떤 종류를 받을 수 있다고 나타내지 않는다.

Coetzee는 말하기를

“이러한 지식이 어떤 종류의 신비롭고 직접적인 조명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선포되어진 말씀, 그리고 주어져 있는 것처럼 *διδαχη*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와 분리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실제로 성령은 *διδαχη απ αρχης*의 영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αληθεια* (2 : 21), 그속에서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διδαχη περι παντων*이 *ο απ αρχης ηκουσατε* (2 : 24a-b) 즉,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것’과 조금도 다른 것이 아니다.” (1981 : 55)

3. 참과 거짓사이를 분별하시는 *Χρισμα*

“(*Χρισμα*)는 참되고 거짓이 없다” (27e, f)는 말은 21~23절을 상기케한다 (Plummer, 1911 : 116).

21~22절은 *Χρισμα*의 역사의 결과로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이제 27절에서는 *Χρισμα* - 성령이 진리의 상징으로 특질이 지워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는 모두가 뛰어난 거짓말장자들이다. 그러한 거짓말과 참된 것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뛰어난 진리, 즉 *Χρισμα*, 성령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는 참되시며 거짓이 없고, 동시에 진리이기 때문이다 (5 : 7).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그를 우리가 위협한 상황에 직면할 때에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성령을 ‘진리의 영’ (요15 : 26 : 16 : 13)이라고 불렀다. 또 요한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시험하도록 경고할 때에 그를 분명히 '진리의 영'이라고 부른다 (4:6).

요한은 말세에 많은 배교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는 교회들에게 *X-ρισμα* - 성령, 뛰어난 진리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요16:13) 진리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만이 교회가 진리와 거짓들 사이를 구분할 수 있다.

결 론

요일 2:20, 27에 있는 *Χρῖσμα*는 어떤 종류의 애매하고 신비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Χρῖσμα*란 말은 영지주의적인 견해들과도 다르다. 구약의 사용에서 가져온 *Χρῖσμα*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 그 분인 것이다.

선생으로서, 또 수호자로서,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우리의 내주하시는 *Χρῖσμα* - 성령의 주된 기능은 두가지 측면을 가진다.

1. 진리와 거짓을 외부적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생)에게 대항하는 것과

2. 내적으로 가르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진리속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Χρῖσμα* - 성령이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한 수호의 챔피언이며 동시에 모든 거짓 선생들에 대항하는 완벽한 용사인 것이다.

동시에 *Χρῖσμα* - 성령은 수많은 거짓 선생들로 인해 위협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물인 것이다. (조교수 · 신학박사)

참 고 문 헌

Alexander, N., *The Epistles of John* (Torch Bible Commentaries). London: SCM, 1962.

- Alford, H., *1 John: Greek Testament wit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vol. 4). Cambridge: Deighton, 1866.
- Barclay, W., *The Letters of John and Jude*. Edinburgh: Saint Andrew, 1976.
- Brooke, A. 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Johannine Epistles* (ICC). Edinburgh: T & T Clark, 1980.
- Bruce, F. F., *The Epistles of John: Introduction, Expository and Notes*. Grand Rapids: Eerdmans, 1981.
- Candlish, R. S., *The First Epistle of John*. Grand Rapids: Kregel, 1979.
- Coetzee, J. C., *Die Gedagtestruktuur van 1 Johannes: 'n Illustrasie van die belangrikheid van struktuurontleding vir die interpretasie en prediking van die Nuwe Testament*. Potchefstroom: PU vir CHO, 1980.
- Coetzee, J. C., *The Holy Spirit in 1 John*. *Neotestamentica* (1979), 43-67, Pretoria: NTSSA, 1981.
- Dodd, C. H., *The Johannine Epistles* (Moffat). London: Hodder & Stoughton, 1947.
- Du Rand, J. A., *A Discourse Analysis of 1 John*. *Neotestamentica* 13 (1979), 1-42. Pretoria: NTSSA, 1981.
- Du Toit, B. A., *The Role and Meaning of Statements of 'Certainty' in the Structural Composition of 1 John*. *Neotestamentica* 13 (1979), 68-83. Pretoria: NTSSA, 1981.
- Grundmann, W., *Art. : Χρῖμα*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d. by G. Friedrich, trans. by G. W. Bromiley, vol. 9, 493-580), 1978.
- Hass, C., De Jonge, M. & Swellenrebel, J. L., *Translator's Handbook on the Letters of John*. London: United Bible Society, 1972.
- Haenchen, E., *Neue Literatur zu den Johannesbriefen: Theologische Rundschau* (NF) 2 6, 1-43. Tübingen: ThR, 1960.
- Haupt, E., *The First Epistle of St. John: A Contribution to the Biblical Theology*. Edinburgh: T & T Clark, 1879.
- Hoskyns, E., *The Johannine Epistles (A New Commentary on the H. S., ed. by Groe, C., London: SPCK), 1968.*
- Houlden, J. L., *A Commentary on the Johannine Epistles* (Black's). London: Adam & Charles, 1976.
- Huther, J. E., *The Epistles of James and John: Critical and Exegetical*

- Commentary on the N. T. Edinburgh : T& T Clark, 1882.
- Malatesta, E., *Interiority and Covenant: An Exegetical study of εἶναι εἰς and μενεῖν εἰς in the First Letter of Saint John.* Rome : Biblical Institute, 1970.
- Malatesta, E., *The Epistle of St. John*(Greek Text and English Translation Schematically Arranged). Rome : Pontifical Gregorian Univ, 1973.
- Marshall, I. H., *The Epistles of John.* Grand Rapids : Eerdmans, 1979.
- Morris, L., 1 John (In : *The New Bible Commentary Revised*, ed. by Guthrie, D. & Mbttyer, J. A., Grand Rapids : Eerdmans), 1970.
- Muller, D., Art. : *Χριστός* (In :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Theology* ed. by C. Brown, vol. 1, 121-123, Exeter : Paternoster), 1976.
- Plummer, A., *The Epistles of St. John* : Cambridge : UP, 1911.
- Potterie, I D L. & Lyonnet, S., Anointing of the Christian by Faith. *The Cristiia Lives by Spirit*, 80, no. 4, 79-143. Staten Island, 1971.
- Procksh, O., Art. : *ἀγιος* in the N. T. (In :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d. by G. Kittel, trans. by G. W. Bromiley, Vol. 1, 100-110), 1978.
- Robertson, A. T.,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The General Epistles - The Revelation of John*(vol. VI). New York : Harper & Brothers, 1933.
- Ross, A., *The Epistles of James and John.* Edinburgh : Marshal, M& S, 1954.
- Stott, J. R W., *The Epistles of John: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London : Inter - Varsity, 1981.
- Thayer, J. 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Edinburgh : T& T Clark, 1896.
- Vorster, W. S., Heterodoxy in 1 John. *Neotestamentica* 9 (1975). 87-97. Pretoria : NTSSA, 1975.
- Vos, G., *The Self-Disclosure of Jesus: The Modern Debate about the Messianic Consciousness*, 1978. Phillipsburg : Presbyterian and Reformed.
- Westcott, B. F., *The Epistles of St. John.* Grand Rapids : Eerdmans, 1976.

현대 학습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김 성 수

1. 序 論

오늘날 기독교 교육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主要 측면에서 論究되고 있다. 그 하나는 기독교 진리 그 자체에 대한 교육으로서 소위 기독교 宗教教育(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또는 교회교육(Church Educ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領域이며, 다른 하나는 教育學 그 자체에 대한 기독교적인 接近이다. 다시말하면 教育現象에서 발생 하는 교육문제의 理論的 解決을 모색함으로써 열려지는 教育學 領域 自体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위에서 教育現象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이를 이론적으로 타당성있게 체계화하는 作業이다. 이와같은 立場에서 볼때 前者의 領域은 곧 後者속에 차지하는 한 중요한 핵심적 부분 혹은 適用으로 간주되어진다.

이러한 접근활동은 시대적으로 볼때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로 하나님의 主權사상이 강조되어지면서 부터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며 오늘날은 화란이나 남아공화국, 미국, 캐나다, 호주등지의 개혁주의 전통